



여수 송기홍



영암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순 박순철

여수시, 기업환경 우수지역 인증 쾌거...기업 체감도 1위

‘인증수여식’ 열고 인증서·인증현판 전달



여수시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수여하는 '2018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이번 인증이 기업 만족도를 반영한 '기업체감도 부문 전국 1위'여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민)는 여수시청에서 '인증수여식'을 열고,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여수시에 전달했다. 인증수여식에는 대한상의 박용민 회장, 여수상의 박용하 회장, 권오봉 여수시장,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 지역 기업인 등 60여 명이 함께 했다.

박용민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 기업환경 우수지역 인증이 지자체에서 공감하고 호응해 주신 덕분에 많은 결실을 맺었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고 행정서비스 개선에 힘써준 여수시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기업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기업체감도 100위권에 머물렀지만 지역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기업체감도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기업환경 우수지역 인증은 전국 228개 지자체의 기업환경을 항목별로 조사·평가해 결정되며, '기업체감도' 부문과 '경제활동전환성' 부문으로 나뉜다.

여수=송기홍 기자

영암군, 농약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 시행 홍보

영암군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약 안전사용 실천을 당부하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연계하여 적극 홍보에 나선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농약의 오염용과 과다사용을 막고 농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의 잔류허용 기준을 0.01ppm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이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농업인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정찬명 소장은 "PLS 시행에 따라 농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영암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강진군, 설 연휴종합대책 수립

강진군은 민족 고유 전통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군민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기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종합상황실은 총 6개 반 100여 명으로 구성되어 분야별 대책반을 편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상황관리를 하게 되고 군민과 귀성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2월 6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지난 21일에는 군청 소회의실에서 설 연휴 대책 보고회를 열어 함께 나누는 훈훈한 명절 보내기,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원활한 교통소통, 재난 및 안전, 지방물가안정 및 서민생활보호, 비상진료와 보건의료 체계 구축, 급수대책,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의 총 8개 분야별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종합안내 책자를 제작, 마을 단위로 배부하여 24시간 응급의료기관 및 당면약국, 주요 음식점 운영, 자동차 정비업소 운영 현황 등 각종 생활 불편 민원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응급환자 발생 대비 병·의원 및 보건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 체계 구축 및 당면 약국(17개)을 지정하고 성수품목을 선정하여 중점관리 하는 등 물가대책 상황실도 운영한다.

안전한 명절을 위해 연휴 전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취약시설 사전 점검을 실시하며 연휴기간에는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재난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또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직원 상하 간 금품수수, 당직근무자의 무단이탈, 민원처리 지연 등에 대해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이밖에 귀성객들을 위해 고려청자박물관, 다산기념관 및 민화박물관을 연휴기간 무료 개방하여 운영하게 된다.

강진=김영일 기자

담양군, 지질명소·역사문화명소 담은 사진 공모

‘유네스코 지질명소 디지털 사진공모전’ 진행



담양군이 지역의 지질·역사문화명소를 담은 창의성 있는 작품을 기다리고 있다.

군은 지난해 4월 담양군 전 지역이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담양의 지질명소와 역사문화명소, 지질명소로 추가 지정받고자 조사 중인 명소(추월산 담양하천습지, 남천퇴적암, 대나무숲)를 소재로 한 '유네스코 지질명소 디지털 사진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3월 22일까지 참가 신청서와 응모사진 원본파일을 우편이나 e-mail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총 20점의 작품을 선정해 시상하며 ▲최우수상(1점) 온누리상품권 50만원, ▲우수상(2점) 각 온누리상품권 30만원, ▲장려상(3점) 각 온누리상품권 20만원, ▲입선(14점) 각 온누리상품권 10만원 등의 상품을 수여한다.

군 관계자는 "입상작은 5월 중 개관예정인 담양에코허브센터 개관식에 기획전시하고, 담양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홍보책자 제작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진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담양군 공고 제2019-1호 '담양군 유네스코 지질명소 생태환경 디지털 사진공모전'을 참조하거나 생태환경과(☎061-380-3077)로 문의하면 된다.

담양=박종영 기자

회순군, 농산물 건조기 70대 지원

발작물 재배 농가 대상 오는 29일까지 접수

회순군이 예산 7천만 원을 투입해 발작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건조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농산물 건조기 70대를 발작물 재배 농가에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보조율 50%, 자부담률 50%다. 보조금 지원 한도는 1대당 100만 원이다.

지원 사업 신청 자격은 회순군에 거주하는 발작물 재배면적 1000㎡ 이상인 농가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이다. 사업 신청은 29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 농가 선정은 2월 중에 한다.

농산물 건조기는 주로 고추 건조에 쓰이며 토란대 등 다양한 농산물 건조에 활용된다. 건조기를 사용하면 노지 건조보다 소요 시간이

짧고 고령화된 농촌에서 일손을 더는 데 큰 몫을 하고 있어 인기 품목이다. 또한, 농산물의 품질 유지와 저장성 향상에 효과가 있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건조기 지원 사업은 농산물의 상품성 유지와 출하 시기 조절, 노동력 절감 등에 효과가 있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지원 사업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회순군청 농업정책과 유통팀(☎ 379-3682)으로 문의하면 된다.

회순=박순철 기자

장흥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장흥군은 오는 31일까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사업비 5억7천3백만원(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억7천1백만원, 공공근로사업 4억2백만원)을 확보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공동작업장 조성, 환경정화사업 등 4개사업장에 15명, 공공근로사업에는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화 사업, 해양쓰레기 수

거주하는 발작물 재배면적 1000㎡ 이상인 농가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이다. 사업 신청은 29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 농가 선정은 2월 중에 한다.

농산물 건조기는 주로 고추 건조에 쓰이며 토란대 등 다양한 농산물 건조에 활용된다. 건조기를 사용하면 노지 건조보다 소요 시간이

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배정된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청 홈페이지의 공고사항을 참조하거나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팀으로 문의(860-0328)하면 된다.

곡성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 총력

곡성군은 2019년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공모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사업 신청을 위해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기존에 구축된 지역의 자산들과 다양한 민간조직들을 활용해 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등 농촌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이다. 올해는 2018년에 선정된 10개 시군을 제외한 전국 113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지 20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2월 28일부터 공모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곡성군은 사업 실행 주체인 지역 주민들의 능동적 참여 선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민관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기반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곡성=김광휘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밟장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